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

정 준 식*

차 례

- | | |
|----------------------------|------------------------------|
| I. 서론 | IV. 결론 : 소설사적 평가를 위한 몇 가지 전제 |
| II. 반복적 예언구도와 숙명론의 함의 | |
| III. 여성우월의식의 약화와 남녀 균형의 미학 | |

국문초록

이 글은 최근 소개된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을 밝힌 글이다. <홍계월전>은 광도사의 두 차례에 걸친 예언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므로 '예언구도'를 핵심으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예언구도'를 통해 숙명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숙명론은 천명사상(天命思想)을 근간으로 한 봉건적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보편적 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홍계월전>에 반영된 숙명론은 수평적 남녀 관계를 당위적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기제로 볼 수 있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창안한 점이다. 그런데 18세기 말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에 창작된 <홍계월전>, <김희경전> 등에서는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남녀 균형의 미학’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곧 여성영웅소설이 처음에는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구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가 18세기 말에 ‘남녀 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새로운 작품이 출현한 후로는 이 둘이 별도의 계열을 이루며 공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홍계월전>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니면서 여성영웅소설사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의 논의는 향후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초기 여성영웅소설, 본격 여성영웅소설, 장르관습, 예언구도, 남녀 균형의 미학, 남녀 불균형의 미학, 속명론

I. 서론

<홍계월전>은 여성영웅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에 걸맞게 이 작품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여타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¹⁾ 하지만 기존 연구자들은 <홍계월전>이 수십 종의 여성영웅소설 중에서 가장 진전된 여성의식을 담지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만 골몰했을 뿐,²⁾ 정작 필요한 이본 검토나 형성시기 고증

1) <홍계월전>에 관한 논문은 수십 편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박경원, 「<홍계월전>의 구조와 의미」, 부산대 석사논문, 1991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17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243-246쪽 ; 김용봉, 「<정수정전>과 <홍계월전>과의 대비 고찰」, 『청람어문학』 제10집, 청람어문학회, 1993 ; 이광호, 「<홍계월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4 ; 황미영, 「홍계월전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5 ; 최두곤, 「홍계월전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96 ;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우리말글』 통권22호, 우리말글학회, 2001 ; 정규식,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우위 의식」, 『동남어문학』 제13집, 동남어문학회, 2001 ;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 김아름, 「홍계월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등의 기초 작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 작품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참신한 해석을 보여준 사례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필자는 <홍계월전>의 이본을 재검토한 바 있다.³⁾ 이에 따르면 <홍계월전>의 이본은 두 차례의 전쟁으로 작품이 종결되는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네 차례의 전쟁을 모두 그려낸 ‘단국대 103장본 계열’로 대별된다.⁴⁾ 그리고 단국대 103장본 계열에 속하는 단국대 96장본의 필사후기에 근거할 때 <홍계월전>의 창작시기는 18세기 말로, 원본에 가까운 이본은 단국대 103장본 계열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런 추정을 근거로 삼아 향후 <홍계월전> 연구에서는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 텍스트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보면 여태껏 이루어진 <홍계월전>에 관한 논의는 한중연 45장본 계열, 그 중에서도 활자본에 편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필자의 이본 연구는 <홍계월전>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홍계월전>의 이본 가운데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원본에 가까운 이본으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홍계월전>을 새롭게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단국대 103장본 계열은 광도사의 두 차례에 걸친 예언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므로 여기에 주목하여 작품의 구성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홍계월전>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녀 역할의 불균형을 균형 쪽으로 전환하려 한 흔적을 뚜렷이 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미학적 기반을 탐색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홍계월전>의 작품론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박경원·이인경의 논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3)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247-279쪽.

4) 정준식, 앞의 논문, 258-252쪽.

본고에서 활용되는 텍스트는 단국대 103장본 계열에 속하는 단국대 57장본, 59장본, 74장본, 96장본, 103장본,⁵⁾ 한중연 60장본⁶⁾ 등이다. 6종 가운데 단국대 103장본만 완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결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6종은 세부 단락에 이르기까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작품의 원문을 인용할 때는 해당 부분의 판독이 쉽고 표현이 매끄러운 이본을 활용하기로 한다.

II. 반복적 예언구도와 속명론의 함의

<홍계월전>의 전체 서사는 광도사의 예언에 바탕을 둔 계월의 수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5세에 부모와 이별한 계월은 뽕공에게 구출된 뒤 7세부터 광도사에게 수학하다가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에 오른다. 그 후 서번·가달의 난을 물리치고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 보국과 혼인하기까지 다시 3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렇게 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총 13년이다. <홍계월전>은 이 13년 동안 계월에게 닥친 수난과 그 극복과정을 그려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수난이 철저하게 광도사의 예언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예언구도’⁷⁾를 <홍계월전>의 전체 서사를 지배하는 핵심구조로 볼 수 있다.

사실 ‘예언구도’는 17세기에 창작된 <숙향전>·<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 등에 다양하게 실험될 정도로 17세기 이래 국문소설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된 수법이다.⁸⁾ <홍계월전>의 ‘예언구도’는 전대 소설 중

5) 이상 5종은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문 필사본이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국문 필사본이다.

7) 본고에서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하나의 예언이 제시되고 난 뒤 작품 전체의 서사가 이 예언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될 경우, 그 일련의 과정을 작품의 구성 원리로 보아 ‘예언구도’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8)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6, 158-164쪽.

에서도 <숙향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숙향전>의 도입부에서 유명한 관상가 왕균은 숙향의 관상을 보고 ‘5세에 부모와 이별하고 15세까지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뒤 17세에 결혼하고 20세에 부모를 만나 영화를 누리다가 70세에 천상으로 돌아갈 것⁹⁾’이라고 예언한다. 실제로 그 뒤 숙향의 삶은 철저하게 이 ‘예언구도’에 맞게 전개되며, 그에 따라 여성수난의 강도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예언구도’에 토대를 둔 여성수난의 양상은 <홍계월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아희 상을 보니 오세에 부모을 이별하고 거리로 단이다가 세 번 죽을 익을 보고 위연이 어진 존공을 만나 그 존공의 덕으로 귀이 되어 이십 일세에 부모를 만나 봉후작녹을 바다 명성이 천하의 진동홀 거시니 스듀는 드문 스듀로소이다...(단국대 74장본, 2장b)

위의 예문은 <홍계월전>의 도입부에서 광도사가 계월의 상을 보고 ‘평생운’을 말한 대목이다. 광도사가 예언한 ‘세 번 죽을 액’은 모두 전란으로 표상되는바 장사랑의 난, 서번·가달의 난, 오·초 양국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계월은 5세에 장사랑의 난을 만나 부모와 분리된 채 강물에 던져진다. 이때 친구 집을 다녀오던 아비(홍시랑)는 장사랑에게 잡혀가고, 계월과 함께 피난하던 어미(양씨부인)는 맹길에게 잡혀간다. 작품에는 계월이 “오세에 부모을 이별”하고 거리로 다니다가 “세 번 죽을 익”을 보고 우연히 “어진 존공”¹⁰⁾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9) “왕균이 크게 웃고 왈 스람의 팔즈난 아지 못흐나니 너 비록 지쵸 업스오나 이 귀 스듀와 승을 보오니 오세에 부모를 이별하고 정처 업시 단니다가 십오 세 당히여 다섯 번 죽을 익을 지니고 십칠 세의 부인을 봉하고 니십의 부모를 만나 티평영화로 지니다가 칠십이 되었면 도로 천승으로 올라 갈 팔즈니다”, 이대본 <숙향전>, 9쪽,

10) 여기서의 ‘어진 존공’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계월을 구출·양육해준 ‘몸공’을 의미한다. ‘여공’은 훗날 계월과 혼인하게 될 여보국의 부친인데, 그는 계월의 목숨을 구한 은인일 뿐 아니라 계월을 광도사에게 데려가 수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기도 하다.

는 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계월이 어진 존공을 만난 것은 세 번 죽을 액을 당한 후가 아니라 첫 번째 죽을 액을 당했을 때이며, 그의 덕으로 수학하여 환로에 오른 뒤 두 번째와 세 번째 액을 차례로 겪는다. 첫 번째 액을 당해 부모와 이별한 계월은 두 번째 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재회하지만, 세 번째 액을 만나 다시 이별했다가 그 액을 극복한 뒤에 완전한 상봉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홍계월전>의 ‘예언구도’는 이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계월전>의 이본은 크게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단국대 103장본 계열로 나뉜다. 전자에서는 광도사가 예언한 ‘세 번 죽을 액’이 한 차례만 실현되는데 후자에서는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현된다.¹¹⁾ 즉 한중연 45장본 계열은 도입부에 제시된 광도사의 1차 예언에 따라 ‘세 번 죽을 액’이 구체화되고 계월이 그 액을 극복하면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단국대 103장본 계열은 광도사의 1차 예언이 실현된 시점에서 새롭게 광도사의 2차 예언이 계월과 보국에게 전달된다.

사부난 이 봉셔을 평국과 보국의계 붓치노라 츠호라 명헌동의 중헌 정니 혼 번 니별혼 후로 보지 못혼니 싱각혼난 정니 점점 티산 갖도다 나난 세스를 바리고 정쳐 업시 단니난 몸니 산슈 풍경만 스랑호고 청풍의 흥을 제워 심곡의 몸을 숨기여 청풍명월과 기린오작으로 버슬 삼어 단니고 너혼난 청운을 죠히 여겨 스제간 의을 니별혼니 실푼 눈물니 홀너 학창의가 져도다 너희 어이 알니요 나난 극염니 벽파도의 물결 갖도다 스부난 빅운선을 들고 질기난 줄 어니 알니요 비록 천호가 티평혼나 지금도 세 번 죽을 익니 잇신니 십번 죠심혼여라...(단국대 59장본, 51장 b-52장a)

위의 예문은 단국대 103장본 계열에서 계월이 편지를 통해 광도사의

11) 정준식, 앞의 논문, 249-252쪽.

2차 예언을 전달받는 대목이다. 광도사는 오·초 양국의 난 때 피난하던 홍시랑 일행을 잠시 돌본 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 황성으로 돌아가는 홍시랑 편에 계월과 보국에게 줄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 인즉 아직도 세 번 죽을 액이 있으니 조심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다. 광도사의 두 차례에 걸친 예언과 그 실현과정을 각기 [예연구도 1]과 [예연구도 2]로 나타내면, 한중연 45장본 계열은 [예연구도 1]만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단국대 103장본 계열은 [예연구도 1]과 [예연구도 2]가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셈이다.

[예연구도 1]에서는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단국대 103장본 계열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사랑의 난, 서번·가달의 난, 오·초 양국의 난으로 구체화된 [예연구도 1]은 여성수난의 극한을 체험한 계월의 수학, 응과·급제, 출정·입궁, 지위극대화의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국은 계월을 보조하는 인물에 불과하여 능력이나 지위 면에서 계월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 [예연구도 1]만 구조화한 한중연 45장본 계열은 우월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젠더이분법과 관련된 중세의 고정관념들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바, 젠더역할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계월의 일방적인 남장활약이 필요했던 것이다.¹²⁾ 그간 연구자들이 <홍계월전>을 통해 계월의 진전된 여성의식을 반복적으로 읽어낸 것은 이들이 [예연구도 1]만 나와 있는 한중연 45장본 계열을 거둬 논의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연구도 1]만 나와 있는 한중연 45장본 계열보다 [예연구도 1]과 [예연구도 2]가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국대 103장본 계열이 원본에 가까운 이본이라는 사실이다.¹³⁾ <홍계월전>은 원래 [예연구도 1]과 [예연구도 2]가 결합된 장

12)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188쪽.

13) 정준식, 앞의 논문, 267-274쪽.

편의 분량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성영웅소설이 통속적 독서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언구도 2]가 탈락된 단편의 한중연 45장본 계열이 새롭게 파생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홍계월전> 연구에서는 마땅히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 텍스트로 삼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에서는 이본 간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¹⁴⁾

<홍계월전>에 구축된 두 차례의 ‘예언구도’는 수십 종의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홍계월전>의 변별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홍계월전>은 이 ‘예언구도’를 통해 인간의 삶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실현될 뿐이라는 숙명론을 환기하고 있다. 흔히 숙명론 하면 봉건체제를 지탱해온 근간으로서의 천명사상을 떠올리게 된다. 상하·남녀의 수직적 질서를 명분화하여 신분적·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천명사상은 중세봉건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숙명론은 바로 이 천명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봉건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¹⁵⁾

그런데 <홍계월전>에 반영된 숙명론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주인공 계월은 ‘세 번 죽을 액’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철저하게 예정된 삶을 살아 가게 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예언구도’를 통해 계월의 삶이 환기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즉 [예언구도 1]의 계월은 ‘남녀의 수직적 질서를 전복하는 전투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있고, [예언구도 2]의 계월은 ‘가부장

14) 기존 연구자들 대부분은 <홍계월전>이 19세기 후반에 창작되었고 이본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해왔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창작시기와 이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면서 <홍계월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마저 막혀버리고 만 셈이다.

15) 숙명론 혹은 숙명론적 세계관에 관해서는 <숙향전>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 논의는 <홍계월전>의 예언구도와 그 속에 담긴 숙명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235-250면;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206-213쪽.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5, 46-74쪽.

제 하에서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예언구도 1]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던 계월이 [예언구도 2]에서 갑자기 수동성을 띠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다음에 제시되는 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오왕의 아들과 초왕의 아들과 밍길의 아우 세 스름의 원슈 잡고
져 호고 천축 도불산의 칠일 지계호고 공도스을 으더 위공을 삼고 천병
만마을 거나리고 온니 니 도적은 가술리 알 도적니 안니라 그러흐나 너
친니 도을 베풀을 거신니 니 말을 니지말고 닛다가 보국니 더원슈을 호
야 공을 세우라 호고 천기를 누설치 못호기로 압피두 익니 닛시되 누설
치 안니호노라 극호 익니 닛신니 깃별 조심호야라 정희가 티산 갓트나
더강 곳치노라...(단국대 59장본, 52장)

위의 예문은 [예언구도 1]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예언구도 2]의 시작을 알리는 광도사의 2차 예언이다. 광도사는 2차 전쟁이 끝난 후 계월과 보국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초 양국의 재침을 예언하고, 그럴 경우 보국을 대원수로 삼아 공을 세우게 하라고 당부한다. 과연 광도사의 예언대로 오·초 양왕의 아들이 재침하는데, 이를 3차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계월을 전장에 보내려던 천자의 의중과는 달리 보국이 자원하여 대원수로 출정하게 된다. 계월 또한 출정하고픈 욕구가 적지 않았지만, 광도사의 예언대로 보국을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계월 없이 치러진 전쟁에서 보국이 대승을 거두게 된바, 이는 광도사의 2차 예언이 착실히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보국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차 전쟁이 끝난 뒤 천자는 계월과 보국의 공을 생각해서 그들의 부친을¹⁶⁾ 오·초 양국의 왕으로 삼아 부임토록 하였다. 그런데 오·초 양왕의 손자들이 중로에서 홍시랑·여공 일행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되자 이때도 보국 혼자서 그 일을 수습하고 돌아온다. 한편,

16) 계월의 부친은 '홍시랑'이고 보국의 부친은 '여공'이다.

마지막 4차 전쟁은 오·초 양왕 손자들의 침공으로 구체화된다. 계월과 보국은 이 전쟁에 함께 출정하였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너무도 쉽게 위기를 맞은 끝에 광도사에게 구출되는 처지에 놓인다. 사실 4차 전쟁에서는 오·초 양국과 명국의 장수들 모두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에 따라 전쟁은 어이없게도 공도사와 광도사의 현란한 도술전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광도사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와 같이 <홍계월전>의 두 예언구도는 각기 다른 지향을 보인다. [예언구도 1]은 남장 여성의 일방적인 활약담을 통해 여성우월의식을 한껏 부추겨 놓았다. 여기서 광도사의 예언은 단순히 계월의 삶의 여정을 암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월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이야말로 여성들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보증해준다. 말하자면 [예언구도 1]은 숙명론이라는 지극히 봉건적인 장치를 통해 고정된 성별정체성과 남녀차별을 부정하는 진보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형국이다. 이에 비해 [예언구도 2]는 여성보다 남성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진보적이던 여성이 가정 안에 다시 갇히는 대신 열등했던 남성의 능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예언구도 1]에서 마련된 ‘여성>남성’의 우열관계가 [예언구도 2]에서는 ‘여성<남성’의 관계로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은 가부장제로의 환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가의 치밀한 전략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에는 허구적인 ‘여성영웅’의 가공할 만한 투지를 앞세워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이라는 대립구도를 경쟁적으로 주조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들 작품에 보이는 ‘여성영웅’의 무용담은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과장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가 창안되고 지속적으로 읽혀진 까닭은 작품 속 ‘여성영웅’의 거침없는 활약상이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던 조선후기 여성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얼마동안은 과격적인 여성의 과장된 활약담이 여성 독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을지 모르겠지만,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의 구도가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변용되면서 구성이 단조롭고 주제가 고착화되는 폐단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런 폐단을 깊이 인식한 작가에 의해 남녀 역할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바, <홍계월전>은 바로 그런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

물론 <홍계월전>의 작가라고 해서 당대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예언구도 1]에는 당대 여성영웅소설에 빈번히 활용되어 온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의 대립구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예언구도 1]에 한정해서 보면 이 작품의 모델이 된 <이현경전>과의 변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작가는 [예언구도 2]를 새롭게 창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예언구도 1]에서 ‘남녀의 수직적 질서를 전복하는 전투적인 여성’이 [예언구도 2]에 와서는 ‘가부장제 하에서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는 현실적인 여성’으로 변모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모는 궁극적으로 남녀를 극단적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존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켜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개념으로 추인하기 위해 작가는 숙명론에 기반한 예언구도를 역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홍계월전>에 반영된 숙명론은 천명사상에 기반한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남녀의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존의 관계’를 당위적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기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여성우월의식의 약화와 남녀 균형의 미학

최근 단국대 96장본 <홍계월전>이 학계에 소개되면서 <홍계월전>의

창작시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단국대 96장본 필사자는 작품 말미에서 1819년에 베낀 <홍계월전>을 수십 년간 간직하다가 그것이 훼손되자 1861년에 밖에서 빌려온 <홍계월전>을 다시 베낀 것이라 하였으니,¹⁷⁾ 1861년에 다시 필사한 <홍계월전>이 바로 단국대 96장본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홍계월전>의 창작시기를 18세기 말로 추정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이 19세기 이후에 창작·유통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곧 19세기에 와서야 본격 여성영웅소설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설저전>이 창작된 17세기 말부터 <김희경전>·<홍계월전>·<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이 창작된 18세기 말까지는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대략 이 1세기 동안 모색, 형성,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 여성영웅소설 시대를 예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남녀의 역할과 비중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군담대목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뛰어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여성우월의식을 한껏 부추겨 놓은 것이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군담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부장양문록>의 장수정금, <김희경전>의 장설빙, <이현경전>의 이현경, <홍계월전>의 홍계월 등은 모두 진세백, 부계, 김희경, 장연, 여보국 등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전쟁에서 뛰어난 무용을 과시하며 승리할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남주인공을 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여주인공은 일약 주석지신(柱石之臣)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반면 남주인

17) 신유 동월 십 과일의 계월전을 등서호였시는 글시도 변 " 촌고 쏘흔 글즈도 간혹 빠져시니 그더로 보옵소서 보면 제우 심 " 면홀 거시니...기묘연의 엇지 계월전을 등서호여시되...우리 남미 갖치 정이 가득하면 있신즉 찌러지미 촌인즉 찌러질가 수철이 박그 잇는 칩을 어더 등서호기난 우리 형님 뿐이요...(단국대 96장본 <홍계월전>, 96장a-b).

공은 사회적 활약에서도 가정 내의 위상에서도 언제나 열등한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 그렇다고 남주인공의 뛰어난 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에는 견줄 수 없는, 빛나는 조연에 불과한 것이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은 혼인을 둘러싼 남녀의 역할에서도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작품의 여주인공은 모두 자신의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쉽게 여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변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변민이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여 여도(女道)를 거부하거나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게 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남주인공의 대응은 미약할 뿐이다. 남주인공은 남장한 여주인공의 정체를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여주인공이 천자에게 올린 글을 통해 비로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때부터 여주인공과 혼인해야겠다는 열망을 강하게 품어 보지만, 여도를 거부하는 여주인공에 의해 그 열망은 번번이 좌절되고 만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오로지 여주인공에게만 열려있기 때문에 혼인을 성취하기 위한 남주인공의 집요한 노력은 애처로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초기 여성영웅소설은 남녀의 역할과 비중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된, 이른바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공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사에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성립되는 과정은 간단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숙향전>에서 ‘여성수난구도’가 창안된 이래, 수난의 중심에 있던 여성 인물이 수동성을 벗어나 남장한 상태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설저전>류의 작품이 모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색이 있는 다음 ‘칼을 든 여성’이 사회·국가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성영웅’의 형상이 <이현경전>·<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 등에서 함께 창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초기 여성영웅소설 작가들에게는 무엇보다 젠더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가변성을 지닌 것임을 확인시켜 줄 효

과적인 장치가 필요했던바,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의 대립구도를 근간으로 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은 바로 이런 필요에 의해 탄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공통된 특징이 되었던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그 후로도 지속되었을까? 필자는 여성영웅소설이 모색,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련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18세기 말에 이르러 여성영웅소설이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들자 일각에서 ‘남녀 균형의 미학’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징후를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이다. 두 작품은 분명 초기 여성영웅소설답게 남녀의 역할과 비중 면에서 여성에게 편중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주인공이 전장에 대원수로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운다든가, 남녀의 혼인이 오로지 여주인공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남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하려 한 흔적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김희경전>은 김희경이 5부인 2첩을 얻어 부귀공명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김희경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려내고 있고, <홍계월전>은 전반부의 군담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던 보국을 후반부의 군담에서 단독 출정하여 대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려냈다. 이는 분명 두 작품보다 앞서 창작되고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온전하게 구현된 <이현경전>의 장면에 비해 남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남녀 균형의 미학’은 후대에 창작된 <이대봉전>·<이봉빈전>·<육미당기> 등에 이르러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남녀 균형의 미학’을 보여준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와서 다시 ‘남녀 불균형의 미학’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지하듯 두 작품은 모두 장편의 이본에서 단편의 이본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거쳤는데,¹⁸⁾ 이러한 변

모는 후반부의 내용을 대폭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김희경전>에는 김희경과 이소저의 이색적인 결연담이 생략되었고, <홍계월전>에는 보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계월의 위상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후반부의 군담이 생략되었다. 바로 이러한 생략이 여주인공의 작품 내적 비중을 높이는 구실을 하면서 초기 이본에서 창안된 ‘남녀 균형의 미학’이 ‘남녀 불균형의 미학’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모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19세기에 접어들면 이미 이전 시기에 마련된 장르관습에 따라 다수의 작품들이 통속적으로 창작·유통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은 가히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 시기 여성영웅소설의 대부분은 크게 변별성이 없는 유형화된 작품들이었던바, 이런 낯익은 서사전개가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독서에 열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법하다. 그런 점에서 <김희경전>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나 <홍계월전>의 말미에 제시된 ‘두 차례의 군담’은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비추어볼 때 군더더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 독자들 입장에서는 일부다처를 합리화하는 <김희경전>의 후반부는 물론, 전반부에서 강화된 여성의 위상을 애써 위축시켜 놓은 <홍계월전>의 후반부가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리 만무하다. 결국 여성 독자들의 이와 같은 인식이 출판업자들의 상업적 전략과 맞물리면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부활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은 진지성이 상실된 것이기에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에 창안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은 이 시기 작가들이 당대 사대부가 여성들의 현실적 불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허구적으로

18)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37-278쪽 및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247-279쪽.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한 것이다. 이에 비해 본격 여성영웅소설 시대에 부활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전대 여성영웅소설을 통속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획득된 것이다. 활자본 고전소설 간행을 전후한 시기에는 상당수의 여성영웅소설이 나름의 장르관습에 따른 유형화된 구성원리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었다. <김희경전>과 <홍계월전>의 이본이 장편에서 단편으로 개편된 것도 두 작품이 이 시기 여성영웅소설의 보편적인 장르관습에 기대어 대중성을 지향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18세기 말에 형성된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남녀 균형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처음 <이현경전>에서 마련된 ‘남녀 불균형의 미학’은 후대에 창작된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정수정전> 등으로 계승되다가 <방한립전>에 와서는 아예 남성이 배제되는 현상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 여성영웅소설 시대로 접어들어 19세기에 이르러 여성영웅소설이 남녀의 우열을 부추기는 계열과 남녀의 균형을 지향하는 계열로 이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여성영웅소설은 처음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구현하면서 시작되었다가 18세기 말에 ‘남녀 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새로운 작품이 출현한 후로는 이 둘이 별도의 계열을 이루며 공존해왔다. 그 결과 후대의 작품들은 두 계열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곳곳에 포진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삼을 때 그간 <홍계월전>을 연구하면서 <이현경전>·<정수정전>과의 유사성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유형적 차원의 논의를 되풀이해온 관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세 작품을 대비적으로 살펴더라도 이제는 ‘무엇이 어떻게 같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 비중을 두고 개별 작품의 변별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홍계월전>은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이현경전>·<정수정전>과는 달리

‘남녀 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초기 작품임을 분명히 전제해둘 필요가 있다.

IV. 결론 : 소설사적 평가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최근 <홍계월전>의 이본 가운데 단국대 103장본 계열이 알려지면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만약 이 이본이 소개되지 않았다면 <홍계월전>은 여전히 여성영웅소설 중 가장 진전된 여성의식을 반영한 후대의 작품 정도로 이해되고 말 공산이 크다. 단국대 103장본 계열에 해당되는 이본은 단국대 57장본, 59장본, 74장본, 96장본, 103장본, 한중연 60장본 등 모두 6종이다. 이들로 인해 <홍계월전>이 늦어도 18세기 말에는 창작된 점과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닌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나아가 <홍계월전>의 초기 이본은 지금까지 대다수 연구자들이 논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났다.¹⁹⁾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홍계월전>의 소설사적 평가를 위해 몇 가지 전제해둘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홍계월전>은 19세기 후반의 산물이 아니라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이 정착되던 시기에 창작된 것이므로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보아야 한다. <홍계월전>이 창작된 18세기 말에는 이미 적지 않은 여성영웅소설이 유통되고 있었으니 <설저전>·<이현경전>·<김희경전>·<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 등이 그것이다. 모색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설저전>이 17세기 말에 창작된 이래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적 모습을 지닌 <이현경전>이 18세기 초반쯤 창작되었으니, 대략 17세기 말에서

19)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247-279쪽.

18세기 초반까지를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²⁰⁾ 그리고 이 형성기를 지난 18세기 중·후반에 <홍계월전>·<김희경전>·<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 등이 잇달아 창작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은 나름의 서사모형과 장르관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대략 18세기 중·후반을 여성영웅소설의 정착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영웅소설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모색, 형성, 정착의 과정을 완만하게 거쳐 온 셈이다. 때문에 이 기간에 산출된 <설저전>·<이현경전>·<홍계월전>·<김희경전>·<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 등을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규정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과정을 실상에 부합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계월전>을 19세기 후반에 산출된 후기 여성영웅소설로 전제하고 논의를 펼쳐온 지난날의 관행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대신 <홍계월전>은 여성영웅소설이 고전소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착되던 18세기 말을 전후하여 창작된 작품임을 명심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작품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홍계월전>의 유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홍계월전>·<이현경전>·<정수정전>을 ‘여성우월형’, ‘남성지배형’, ‘후기 여성영웅소설’이라는 특별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세 작품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일쑤였다. 이들은 세 작품에서 한껏 고양된 여성의식을 다각적으로 검출한 뒤 이를 근거로 <홍계월전>·<이현경전>·<정수정전>이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임을 애써 증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세 작품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이들이 마치 여성영웅소설사의 대미를 장식한 획기적인 작품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하였다.²¹⁾ 물론 <홍계월전>·<이현경전>·<정수정전>을

20) 형성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현경전>은 여러 면에서 어설피거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남녀주인공의 출생과 정혼 대목이 아예 없는 점, 군담이 초반부에 치우쳐 있는 점, 여주인공의 남장 노출을 둘러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점, 남녀의 우열이 지나치게 조장된 점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같은 유형으로 묶을 만한 단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우월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대결구도를 창안하여 여성 주도의 문제해결을 오롯이 부각한 점은 세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홍계월전>이 ‘남녀 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작품임에 비해 나머지 두 작품은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홍계월전>이 <이현경전>의 뒤를 이어 곧바로 창작된 작품임에 비해 <정수정전>은 <이현경전>이 산출된 이래 약 1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홍계월전>과 <정수정전>이 모두 <이현경전>의 남녀대립구도를 근간으로 삼은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홍계월전>은 ‘예언구도’를 새로 창안하고 ‘남녀 균형의 미학’을 구현한 것임에 비해 <정수정전>은 <이현경전>의 ‘남녀 불균형의 미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김희경전>·<이대봉전> 등에서 여러 모티프를 변용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홍계월전>은 독창적인 작품이 되었고 <정수정전>은 전대 여성영웅소설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방작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 작품의 공통점에 현혹된 유형적 차원의 논의를 지양하고 <홍계월전>의 독자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현경전>과 <홍계월전>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에 해당되는 만큼 <홍계월전>이 <이현경전>의 자장에서 벗어난 측면과 여성영웅소설의 정착에 기여한 바를 밝히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홍계월전>과 <김희경전>을 중심으로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로 짜야 할 것이다. 두 작품이 18세기 말에 창작된 초기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주장은 아주 최근에야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거듭된 논

21) 이인경, 사진실의 논문에 이런 폐단이 적실하게 지적되어 있다.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 제17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227-231쪽;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563-574쪽.

의를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홍계월전>과 <김희경전>이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판명되면, 그 다음은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로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색에는 반드시 여성영웅소설에 해당되는 개별 작품의 이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작 시기를 고증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개별 작품 간의 수수관계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을 초기 여성영웅소설과 본격 여성영웅소설로 나눌 경우, 최근 거듭된 논의의 결과 초기 여성영웅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은 대략 그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본격 여성영웅소설시대라 할 수 있는 19세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창작시기의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현재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19세기 전반에 창작된 작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연구자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개별 작품의 창작시기를 판명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그렇다고 정밀한 이본 검토 외에 이 난관을 극복할 방안이 따로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앞으로는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비중 있는 몇몇 작품에 한해서라도 면밀한 이본 검토를 통해 창작시기를 고증하고 선분을 확정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단국대 103장본 <洪桂月傳>(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단국대 96장본 <桂月傳>(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단국대 74장본 <홍계월전>(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단국대 59장본 <洪桂月傳>(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단국대 57장본 <홍계월전>(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한중연 60장본 <홍계월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 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179-196쪽.
김아름, 「홍계월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용봉, 「<정수정전>과 <홍계월전>과의 대비 고찰」, 『청람어문학』 제10집, 청람어문학회, 1993, 65-88쪽.
박경원, 「<홍계월전>의 구조와 의미」, 부산대 석사논문, 1991. 8-20쪽.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156-193쪽.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563-574쪽.
이광호, 「<홍계월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4.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17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243-246쪽.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5, 46-74쪽.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235-250쪽.
정규식,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우위 의식」, 『동남어문학』 제13집, 동남어문학회, 2001, 229-250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6, 158-164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
연구학회, 2007.04, 237-278쪽.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9,
247-279쪽.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 의식」, 『우리말글』 통권 22호, 우리
말글학회, 2001, 195-218쪽.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206-213쪽.

최두곤, 「홍계월전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96.

황미영, 「홍계월전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5.

<Abstract>

The Composition Principles and Esthetic
Foundation of *Honggyewol Jeon*
- Centered on the 103 Jangbon from Dankook
University -

Jeong, Jun-Sik

This research is an essay that reveals the composition principles and the esthetic foundation of *Honggyewol Jeon*(홍계월전). *Honggyewol Jeon* can be said to be a piece having a prophecy structure as its center since its narration is unfolded according to twice prophecies of Gwak guru. The author is suggesting fatalism through this prophecy structure; the fatalism here is not a feudal ideology based on Chyeonmyung(天命) Ideology (an ideology thinking that everything is from God's will) but holds the meaning that it is a universal principle of life which should be naturally processed. Therefore, the fatalism reflected in *Honggyewol Jeon* should be seen as the mechanism reflecting the intention of the author who wants to embody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as a should be reality.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early female heroism novels are to create 'the esthetics of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a clear contrast of a superior woman versus an inferior man. However, in *Honggyewol Jeon* and *Kimheegyung Jeon*(김희경전) created around the late 18th Century, the 'esthetics of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is shown to be transformed as the 'aesthetics of 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This points the fact that female heroism novels started to embody the 'aesthetics of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at first, but after new works emerged which presented the 'aesthetics of 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two came to coexist and form separate systems.

The above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guide in newly establishing the system of female heroism novels in the future.

Key Words : Initially feminine hero novel, Real feminine hero novel, Style custom, Prediction composition, Aesthetics of man and woman balance, Aesthetics of man and woman imbalance, Fatalism

[